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4호 [루게 제24382호] 주체102(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한광상동지, 박태성동지, 황병서동지, 김병호동지, 홍영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원동지, 삼지연군당 책임비서 주태경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다녀가신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이 여러 연구실과 활동실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과외생활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 성악소조실, 물리소조실, 자동차소조실을 비롯한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조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되는 계절적특성이 있는것만큼 겨울철에도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을 지장없이 할수 있게 궁전의 실내온도보장조건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온도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궁전건물의 외형이 특색있고 지금도 비교적 손색이 없는것만큼 내부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하자고 하시면서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당에서 직접 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궁전을 개건할 때 소조실들의 교구비품들을 모두 새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관관리실태와 군내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예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상영은 어떻게 하는가도 물어주시고 군내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회관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체육촌의 실내호케이장과 아이스케이트장, 스키주로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기에 맞게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널리 리용할수 있는 대중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더 현대적으로 건설해주자는것이 당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중요한 겨울철체육기인 백두산지구체육촌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체육촌개건을 당에서 직접 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개건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체육촌에 일반대중봉사시설로서의 산악스키주로를 더 잘 꾸려주고 인공잔디를 깐 축구장도 마련해주어 삼지연군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자봉체육단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에 앞서 선수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를 배운지 얼마나 되는가도 물어주시고 그들이 착용한 스키복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바꾸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체육관에 들리시여서는 야간에도 운동을 할수 있게 조명조건문제를 원만히 풀어주며 롱구대를 비롯한 기제들을 더 잘 설치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배개봉국수집을 돌아보시였다.

배개봉국수집은 군내인민들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는 답사자들에게 량강도의 특산음식인 농마국수를 봉사하여주는 규모가 큰 급양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층과 2층의 여러 식사칸을 돌아보시면서 국수집의 내외부환경과 봉사활동정형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개봉국수집은 민족적형식을 살려 특색있게 건설했으며 내부장식도 지방의 특성에 맞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이 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근로인민이 주인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봉사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해 복종되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고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당과 같은 급양봉사단위에서 위생성을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몸소 소독상태도 알아보고 국수집에 대한 군내주민들의 반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배개봉국수집운영을 더 잘하자면 남의 본을 따러 하지 말고 자기 지방의 특색, 자기의 얼굴을 살리며 농마와 고기 등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개봉국수집의 봉사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 문화회관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삼지연문화회관은 군내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문화정서생활의 거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김원홍동지, 김양진동지, 한광상동지, 박태성동지, 황병서동지, 김병호동지, 홍영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원동지, 삼지연군당 책임비서 주태경동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삼지연 못가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1939년 5월 조국에 진군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력사적내용을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반영하고 있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었던 력사적인 그날의 모습그대로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주제 조각군상

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받기하시고 일떠세워주신 삼지연대기념비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에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영웅사시적화폭이라고 하시면서 대로천 박물관이 불수록 장관이라고, 그림처럼 황홀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러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혁명전적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대기념비관리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생 1각, 대학생식당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답사숙영소의 봉사활동정형과 답사자들의 생활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통나무집

형식의 답사숙영소는 언제 보아도 백두밀림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며 특색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전적지 답사자들을 위한 생활거점답게 답사숙영소의 내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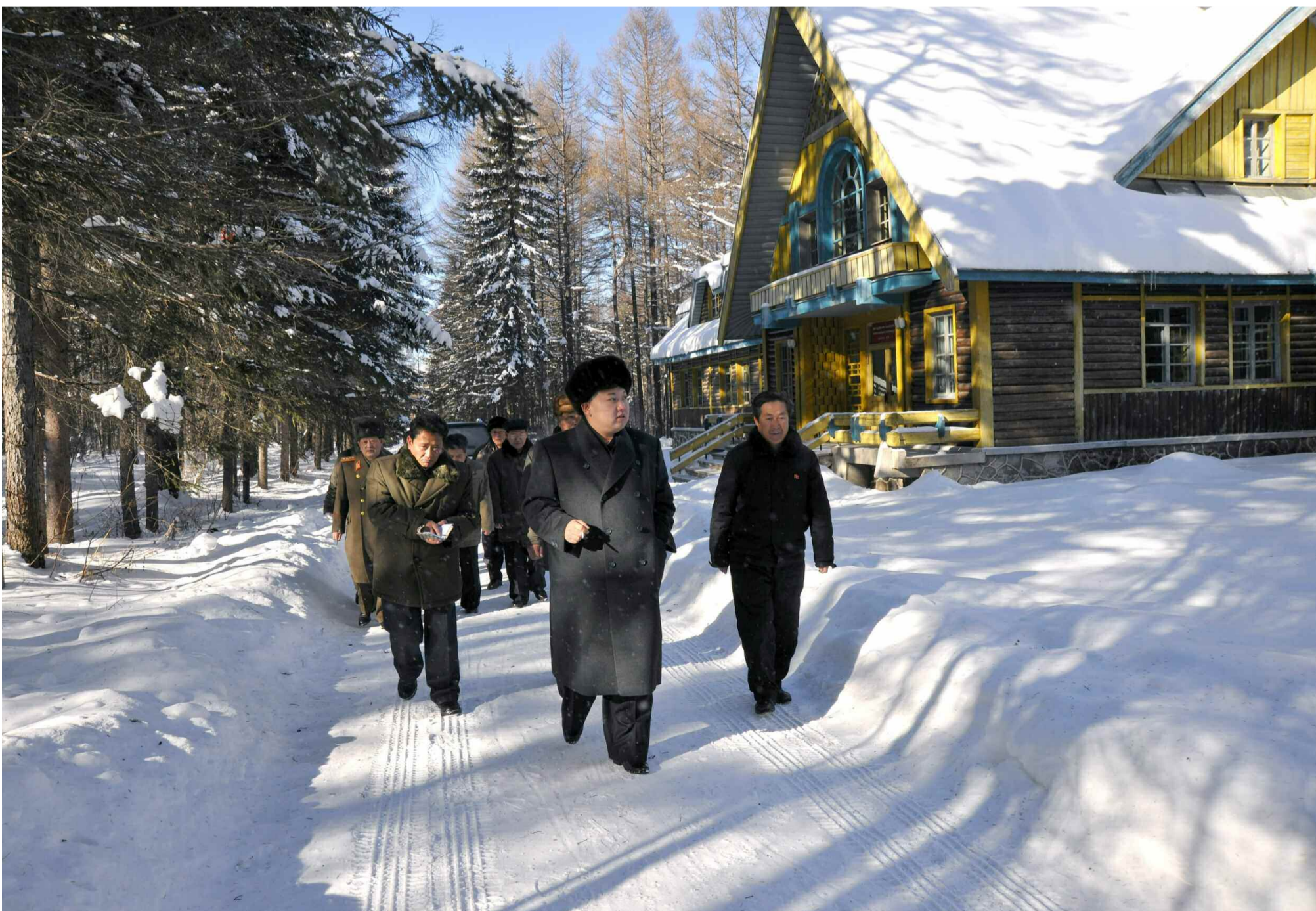
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겨안도록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조직을 짜고들며 정기답사와 일반답사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사업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항공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절을 맞으며 오종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김영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뜻깊은 항공절에 머나먼 북변에 위치한 자기들의 부대를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게 된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항공절을 맞은 군부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군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이곳 군부대를 비롯한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이 사회주의



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의 항공무력을 최정예전투대로로 장성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고, 비행사

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목숨바쳐 결사옹위해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항공무력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대원수님들의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업적은 주체의 군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의 항공 및 반항공군이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 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어 천만군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위대한 당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높은 기교동작을 수행하며 바람처럼 날아내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마식령스키장이 준공되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스키바람이 일어 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대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키를 많이 타게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스키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량강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고 녹는 기간이 오랜것만큼 자연지리적조건을 옹계 리용하여 스키운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돌아보신 다음 군앞에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삼지연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동네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삼지연군내 인민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말씀을 자자구구 따져가며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에서는 감자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도 정해주시고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여나가도록 중앙과 도에서 적극 밀어주고 전국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에 또 오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적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군안의 매 세대들에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삼지연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뻗은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의 군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군이 나아가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백두산아래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년말전투를 빛나게 결속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장시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보라!

-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부르는 노래 -

류명호, 최주원

1
 해썬 아침이면
 햇빛이 창가에 모여
 나에게 속삭인다
 너는 누이기에
 이렇게 궁궐같은 집에서 사는가고

별뜨는 밤이면
 별빛이 창가에 내려
 나에게 속삭인다
 너는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황홀한 집에서 사는가고

햇빛으로 쌓은듯
 별빛으로 쌓은듯
 낮에 보아도 눈이 부신 살림집
 밤에 보아도 눈이 부신 초고층
 호화주택

눈을 뜨고도 꿈만 같아라
 이 땅의 평범한 교원, 연구자들이
 이렇듯 현대적인 집
 세상이 부러워하는 살림집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것이

이 세상에
 교육이라는 말이 생겨 수수천년
 그 하찮은 세월이 흘렀어도
 내 나라 내 조국처럼
 교육이라는 그 의미가 그처럼
 값높고
 교육자라는 그 이름이 그처럼
 빛나는
 그런 시대 그런 력사가
 그 어느 세월의 갈피속에 있어
 보았더냐

보아라
 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찌기 해썬은 통남산마루에
 인민의 의지로 높이 때울린
 김일성종합대학의 거대한 웅지를

보아라
 햇빛넋친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사랑의 주추들을 깊이도 심어놓고
 푸르른 창공에 높이도 안아세운
 이 나라의 교육자살림집을

아, 우리 원수님
 교육자들을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이시고 높이 불러주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에게
 이 희한한 집을 안겨주시라
 그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쳐오셨
 던가

못 있어 오늘도 우리 못 있어
 세계에 존엄 떨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이 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뒤에는
 바로 교육이 있다 하시며
 우리 원수님 하시던 뜨거운 그
 말씀

-나는 언젠가 보았던
 장군님의 그 수첩을 잊을수 없소
 그 수첩엔 붉은색으로 여러번
 덧그은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그 붉은 동그라미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제가 있었소

아, 우리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소중히 품고계신 그 수첩에
 보물이 일도록
 여러번 긋고 덧그으신 붉은 동그
 라미

통남산교육자들을 위해
 이 세상 아름다운 행복을 다 주시
 고도
 무엇을 더 주지 못하시며
 이 수첩 가슴에 품으신채
 우리곁을 떠나셨단 말인가

못 견디게 가슴 찢어드노라
 그날에 우리 장군님 그러보신
 이 호화로운 집에
 새살림엔 우리 마음
 더더욱 그리움에 젖어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나니

우리 교육자들을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자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해주자고
 우리 원수님 뜨겁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보았어라
 교육을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시는분
 우리 장군님과 똑 같으신
 위대한 스승의 거룩한 모습을!

소리없이 눈곱 적시며 우러러
 보노라
 주체교육의 성지
 통남산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여기

원수님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푸른 하늘을 떠이고 아이히 솟아
 오른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여

우리 안다 해도 다 모르리라
 이 집에서 흘러가는 하루하루
 이 창가에 스며드는 햇빛의 한줄기
 한줄기
 어떻게 깃들었는지
 어떻게 비겨왔는지

햇빛도 밝은 9월
 살림집건설장에 오신 그날
 이제는 살림집이 다 되었는데
 주인들과 함께 돌아보자 하시며
 대학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원수님

친자식들을 보살피는
 어버이심정인가
 어느 한 집에 들어서시어서는
 출입문 가까이 빈 벽을 가리키시며
 어른아이 할것없이 집을 나설
 때는
 다 자기 몸을 보고 나가는데
 여기에 꼭 라틴형거울을 걸어
 주자고

장식장과 벽사이
 누구도 보지 못한 자그마한 틈을
 보시고서는
 짝이 보이지 않게
 잘 치러야 한다고...

아, 천만대적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쥐락펴락하시는 조선의 장군
 우리 원수님은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고 세심
 하실가

지난 시기 사람들은 살림방에
 화면이 작은 텔레비전을 놓고도
 만족했었지만
 지금은 수준이 높아 큰것을 요구
 한다고
 공동살림방에 우리가
 화면이 큰 액정텔레비전을 놓아
 주자고

공동살림방과 잇달린
 식사간에 들어서시면서는
 내가 뭘 더 해주겠는가 밤새 생각
 했다고
 모든 살림집들에
 6인용그릇세트를 주는것이 좋겠
 다고

그렇게 되면 그릇들이 너무 많아
 어데 놓을지 모르겠다는 한 일군의
 말에
 호랑하게 웃으시는 그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
 주인들이 다 진사하오

그러시고는
 그릇세트를 받아안고 기뻐할
 가정주부들의 모습을 그려보시
 는듯
 뜨거운 정 흘러넘치는 그이의
 읊성이며
 -그릇세트를 보내주면
 아마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할
 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단에 선 남편들을 위해 마음
 써온
 가정주부들의 수고를 헤아리시
 는가
 내인들의 반생이 흘러간다는 부엌
 에서
 오랜 시간을 바치신 원수님

어찌 그뿐이라
 교원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늘상 펼쳐보는 책들은
 가까이 놓는것이 더 편리할지라고
 책상앞 벽면에 당반식책꽂이를
 설치해주자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라

아, 주시고 또 주시는
 어버이사랑의 그물은 어디인가
 그날 우리 원수님은
 아직 승강기도 다니지 않는 살림집
 그 계단을 따라 17층까지 걸어
 오셨었거니

한층 또 한층...
 은땀을 땀으로 적시며
 실내휴식터에 들어서신 그이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통통네거리를 굽어보시며 경치가
 좋다고
 출퇴근거리가 가까와 좋겠다고
 환히 웃으실 때

땀에 젖은 그이의 모습 우러르며
 격정에 목이건 일군들
 물어보자, 력사여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명도자가

이렇듯 교육자들을 위해
 크나큰 사랑과 로고를 바친적 있었
 던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지금까지 살림집을 건설하던중
 제일 잘 되었소
 확실히 멋있소 고려호텔보다
 낫소
 여긴 집이 아니라 종합대학호텔
 이요!

오, 종합대학호텔!
 이 한마디로
 자신의 기쁨을 다 표하신 그이
 가시면서도 떠나가시면서도
 36층, 44층살림집을 다시 또다시
 보신
 원수님의 심중을 우리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당창건기념일을 하루앞둔 10월
 9일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살림집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44층 마지막살림집까지 다 돌아
 보시고
 새 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었으니

말해보라
 이 나라의 복받은 교육자들이여
 우리 원수님
 저 하늘의 별을 따라 주시려고
 그날
 그리도 높은 그 마지막층까지
 기거이 오르셨던가

받아안은 영광이 정말로 하늘
 같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우리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며
 온땀을 다해
 온 심장의 열을 다해
 오늘의 이 행복 눈물속에 아뢰
 었어라

그 사연 다 아시는듯
 그 마음 다 아시는듯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심장으로 새겨들었나니

-내 오래동안
 어미땀이 병아리를 품듯이
 종합대학을 곁에 끼고 돌부추였
 는데
 오늘은 김정은동지가 동무들을
 돌부추고있소

-이번에 김정은동지가
 현대적인 교육자살림집을 지어
 주였는데
 김정은동지를 받드는데서
 김일성종합대학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아, 이 세상에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건만
 조선의 교육자들처럼
 이렇게 특건과 특혜속에 탄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라

들어보자, 력사여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에게
 천만금을 쏟아부은 희한한 살림집
 들을
 무상으로 안겨준 나라가 있었던가
 300세대의 교원, 연구사가족들을
 한 날한시에 사랑의 금방식에
 앉혀준
 그런 명도자가 있었던가

이렇게 현대적인 집을 사자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야 하는지
 당신들은 아마 모를지라
 이렇게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받아
 안은

조선의 교육자들은 《부자》라고
 우리를 그토록 부러워하는 외국의
 벗들이여

부자란 무엇이더냐
 무엇을 보고 부자라 이르더냐
 황금이더냐 억만재부이더냐
 그 어떤 황금과 재부로도 사지
 못할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렇다 그 사랑과 믿음을 안고
 사는
 우리 교육자들이
 사회주의 《억만장자》들이다

그 《억만장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움도록
 하늘가에 높이도 떠받들어올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 교육중시사상의 기념비

우리 당 인재중시사상이 안아
 올린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

그렇다!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
 마음껏 행복과 문명을 누리며
 후대 교육과 인재육성 사업을
 하라
 원수님 안겨주신 현대적인 살림집

아, 가슴벅찬 삶의 회열에 한껏
 넘쳐
 사랑의 대문을 열고
 그이 품에 안긴 우리
 원수님 다녀가신 축복받은 살림집
 궁궐같은 우리의 집들에
 이 세상 교육자들을 다 초청하
 노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초청하노라

2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
 말로는 다 전할수 없어
 머리에 두름한 《책》을 펼쳐들었
 는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이여

생각없이 바라보노라
 지붕위에 펼쳐놓은 부피두터운
 《책》!
 저 《책》 갈피갈피에
 우리의 이 글도 정히 새겨넣고
 싶나니
 그래서 더더욱
 가슴터치고싶은 이 진정

그 어느 집문을 열어도 좋다
 밖에는 찬바람 불어쳐도
 따스한 전기온풍의 후더운 공기
 온몸을 휩싸인아 가슴에 뜨거운
 여기서 내가 산다
 여기서 우리 교육자들이 산다

화려한 부엌에 들어서면
 기쁨이 찰랑거리는
 녀인들의 밝은 얼굴이 반기는 집
 드넓은 공동살림방에선
 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밤깊도록 끝없이 이어지는 집

새 집들이 한지도 퍼그나 되었
 건만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줄 모르고
 외국의 벗들도 끝없이 찾아와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니
 이밤도 설매이는 내 마음
 그리움에 젖어 잠들수 없노라

영광의 그날
 우리 원수님 다녀가신
 44층 내 집의 창문을 활짝 여니
 한눈에 다 굽어보이누나
 저 하늘의 별무리 내려앉은듯
 층층 불빛들이 빛나는 교사들

언뜻 불어오는 바람결도
 그날의 그이의 말씀을 실어오는가
 내 마음속에 메아리로 울려오누나
 여기에 서니 통남산이 다 보인
 다고
 그리도 맑게 웃으시던 원수님의
 그 읊성

그대가 누구이든
 층높은 이 집의 창가에 서보라
 그러면 아득히 저 멀리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오늘에도 힘차게 걸은
 우리 교육의 발자국이 보이리라

나라는 해방되었건만
 토스케웃도 벗지 못한채
 아직도 오락살이에서 사는 사람들
 숨죽은 공장들과 녹이 쓴 철길들...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참으로 생각깊던 내 조국

흘러온 력사에 물어볼걸 없고
 인류가 대답할걸 없는 건국의
 길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인제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건국철학을 내놓으신 우리
 수령님

나라의 민족간부, 인재들을 키우
 자면
 교원들의 생활을 잘 돌부추어야
 한다시며
 새 교사와 함께
 평양에서 제일 좋은 살림집을 마련
 해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

어찌 있으랴
 갓 해방된 조국에서
 나라의 중요기관들도 건물이 없어
 여기저기 널려있던 그때
 종합대학 교원들이 받아안은

그 2층살림집을

우리 오늘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아보노라
 그날의 그 2층살림집
 풍전도 아껴써야 할 나라의
 형편이
 수령님의 심중에 아프게 맺힐 때
 이 나라 교육력사의 첫 기슭에
 이담하게 자리잡은 그 2층집!

그 집은 그 살림집은
 교육자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무겁게 떠실린 력사의 집!
 불빛넋친 새 조선의 터전위에
 수령님 놓아주신 건국의 주추들!

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도
 평양시민들도 한목소리로 불렀
 더라
 그 2층집을 가리켜
 《건국의 집》이라고

아,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말과 글마저 빼앗겼던 민족
 그 인민, 그 조국을 위해 우리
 수령님
 김일성종합대학을 첫 인민의 대학
 으로

나라의 모체대학으로 세워주시었
 으니
 새 조선의 교육력사는
 해썬은 통남산기슭에 깊은 뿌리
 박고
 푸르른 거목으로 자라났어라

그 거목의 무성한 가지밑에서
 우리 조용히 더듬어보는
 못 잊을 추억이여
 소리없이 젖어드는 가슴이여

잊을수 없으랴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교육과학을 중시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장군님
 종합대학살림집문제를 의논해
 주시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하여
 미래상점까지 내오도록 하신 그
 사랑음

참으로 우리 장군님
 교육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위해서
 라면
 그 무엇인들 아끼신적 있던가
 학자들에게 고급음용차도 배려해
 주시고
 나라의 큰 대회 추석단에도 앉혀
 주시고

세상이 보란듯이
 통남산 대학지구
 세계적인 수령관도 현대적인 전자
 도서관도
 일떠세워주신 장군님
 오늘도 뜨겁게 울려오라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웅메달이라도 달아주고
 싶다고 하신
 장군님의 그 말씀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선군장정의 길에서도
 대학들과 연구기지를 끝없이
 찾으시어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셨
 나니

아,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교육중시사상의 빛날속에
 세계적인 인재들의 대부대가
 자라는
 백두산대국의 래일은
 얼마나 그 얼마나 무궁번영할것
 인가

조국이며, 자랑하랴
 령강들이 떠드는 독점기술을 딛고
 나가는
 20대, 30대의 우리의 청년과학
 자들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추진들에서
 특등상과 금메달을 받는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을

인민이며, 자랑하랴
 세계의 패권을 쥔
 우리 식 CNC첨단기술을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의
 폭포
 강국의 무한대한 지적자원이 낳은
 거대한 변혁과 비약의 눈부신
 성과들을

어버이수령님 품에서
 맺은 올린 주체의 교육과학은
 위대한 장군님 품에서
 비약의 나래를 펴고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서

대진성기를 맞이했어라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경군시기에도
 대학시절을 자주 추억하시며
 통남산언덕을 다시 또다시 찾으
 시던
 위대한 장군님

아, 그래서 우리 원수님
 대학에 장군님 동상을 모시고싶어
 하는
 교직원,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
 절절한 그 녀민을 풀어주시길 때
 에도
 조선을 빛내일 맹세를 다지시던
 그 모습
 대학시절의 장군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해주신것 아니던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아침마다 들어서시던 이 교정
 오늘은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어
 더욱더 밝고 승업한 이 교정
 그 이름도 빛나는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
 이여

여기서 매일같이
 해썬은 아침과 더불어
 교단에 오르는 우리
 자녀이면 불빛환한 서재에서
 또 하루 새날의 시작인듯
 교육과학사업으로 탄발을 지새
 우는 집

한밤에도 창을 열면
 붉은 노을 비껴오는 통남산 푸른
 언덕
 조선을 빛내일 위대한 맹세의 뜻
 아침의 태양인양 눈부시게 빛날차
 오는 곳
 여기서 바로 여기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살며
 일하거니

누구는 새 학과목개척문제를 두고
 누구는 세계적인 발견을 두고
 누구는 뛰어난 수재의 논문
 제마를 두고
 배발의 원사와 교수들
 애젊은 박사과 박사원생들
 열면 논쟁과 토론으로 끓여버치
 는 집
 여기 교육자살림집은 또 하나의
 대학인듯

사람들이여
 우리 오늘 일요일의 실내휴식터
 에서
 백발의 원사 흥그러이 떠놓은 말
 다시 들어보자

-그날 원수님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전에
 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좋은 집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었소
 그리고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었소

아, 원사에게 주신 그 말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모두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지
 그 사랑 그 믿음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줄 모른다면 그 무슨 인간
 이랴

너와 나
 우리 땅의 사랑과 믿음속에 살며
 우리 인민의 보금자리
 우리 사는 세상이 제일이라고
 만세만 부르지 말자

메일 메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지식경제시
 대에
 교육과학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은 열걸음 백걸음 떨어지
 거니

바쁘게 살자
 우리 더 바쁘게 살자
 오늘위엔 오늘이 없어라
 일한만큼 행복이 가까이 오고
 일하지 않은만큼 행복은 멀어지
 더라

총대가 약하면
 조국을 잃은 노예가 되고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조국이 있어도 종살이를 하게 되
 나니

심장의 불을 달고
 피더운 맹세를 품으며
 우리 이제 보여주리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어떤 기적을 낳게 되는가를

우리 일을 하리라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우리 더 새벽 일찍 일어나

더 밤늦게까지 일을 하리라
 피땀이 쉬이지 않는 시간은
 돌아볼것이 없거니
 우리 분발하고 또 분발하리라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하신
 장군님의 불멸의 그 친필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과학의 최첨단을 넘어
 주체과학을 세계의 앞장에 세우
 리라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빛내리라

이 세상 불우한 과학자들이
 버림받은 삶에 짐을 빼고
 이리저리 거친 세상 떠돌며
 피눈물에 젖은 보짐 풀어도
 조선의 교육자, 과학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공부시켜 내세
 워준
 우리 땅의 꿈을 떠나 살수 없거니
 과학엔 국경이 없어도
 우리에게 당이 있고 사회주의조국이
 있어라

우리 아노라
 나라를 더욱 부강케 하는 길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혁명인재들을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이
 더 많이 키워내기를 바라는
 우리 땅의 높은 뜻을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조국이며 인민이며
 우리를 믿으시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
 으로 지니고
 최첨단과학기술로 무장된 대부대
 은 나라 과학기술인재회의 선두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다

지금껏 인류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 령강들을 발밑에 굽어
 보는 대부대
 아, 인제대국, 교육강국으로 위엄
 떨치는
 이 땅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있음은
 원수들은 무서워하랴

아, 우리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가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최전선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이
 서있다
 김정일에 국주의로 심장을 불태
 우며
 통남산에서 자란
 선군혁명형의 믿음직한 골간들이
 있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 원수님의 명도를 총정으로
 받들면
 인민이 잘살고
 조국이 부강한다는 진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릴 그날이
 저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까이 있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해주는
 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이여

이 지구위에 이 행성위에
 이 집은 억만년세월속에 솟아
 우리 땅의 교육중시의 위대한
 승리를
 대대손손 전하며 길이 빛나리라

만만년 우리 민족사에
 가장 강하고
 가장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우렁찬 《조국찬가》
 이 나라 교육자들의 심장에 메아
 리로 울린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
 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리 아 조선 인민공화국
 아, 사상으로 위대하고
 총대로 강하고
 과학기술로 무궁번영할
 인민공화국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조선은
 온 세계를 앞서나가리니

세계여 보라
 21세기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거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에서
 우리 인민의 창창한 미래를 보라!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보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어올라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 남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당의 예방의학 적방향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2예방부문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계수웅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부터 일흔이 넘은 오늘까지 보건부문의 가장 어려운 초소에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온 로박사이지만 꿈과 포부로 가득찬 열정넘친 모습이었다.

그의 학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계수웅동무가 평양시제2예방원으로 일러를 옮길 결심을 하고 당조직을 찾아간것은 8년 전이었다.

(년한이 있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서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이나 매추는것은 참된 의학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현실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치료 사업을 이바지하자.)

건강을 넘겨해주는 당일군에게 그는 말했다.

«일었습니다. 또다시 당신이 전 건강전투에서 다른 것보다도 열성에서야 지금도 젊은이를 못지않고.»

이렇게 치료에방만되오게 된 그는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의 현실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맞게 2예방부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풍부히 갖춘 의사와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여 그는 참고서집필 사업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현실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들에

참된 의학자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평양시제2예방원 연구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청춘기에 사는 로박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평양시제2예방원 일군들은 계수웅박사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의일군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높이며 살아온 그를 널리 소개해줄것을 절절히 부탁 하였다.

40년세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온 로박사의 한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깊은 것이었다. 그가운데서도 박사의 학위를 받고서도 다시금 현실속으로 뛰어들던 8년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학자의 활무대

해답을 주는 그러한 도서를 만들것을 결심한 그는 즉시 전국의 치료예방기지에 달려나갔다.

도는 물론 전국의 시, 군인민병원들과 리인민병원, 진료소들의 의료일군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그는 그들이 알고있어하는 문제,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 문제 등을 찾아내려 하였다.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배움터였다.

불光是 열정을 지닌 그는 병원에 온지 불과 몇달만에 지금 자신이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을 총합쳐 그리고 현에서 만나는 의료일군들과의 담화과정에서 알게된 자료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도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책이 나오자마자 독자들로부터 리해하기 쉽고 실용성이 아주 크다, 이런 책들을 많이 출판해주면 좋겠다 반응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그는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보충하여

또다시 증보판들을 집필하였으며 전국각지의 2예방부문과 리인민병원, 진료소 의료일군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에도 앞장섰다.

짧은 기간에 왕성한 투지와 정열로 넘쳐 계수웅동무는 2예방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도서를 집필하였을뿐 아니라 도서를 출판하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집필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는 보건의일군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의와 강습이 제기될 때마다 늘 자진해서 맡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어느 한 병원에서 초청한 강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랐던 그는 그안에서 강의용지판을 놓고 내리게 되었다. 강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며칠밤을

조국앞에 성실한 인간이 되자

계수웅 동무는 위대한 대인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 관철에서는 단 하나의 양보도 모르는 참된 과학자이다.

보건부문에서 대중약품, 필수 약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무상제공해 줄때 더 잘 미치도록 할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그는 흥분된 심정을 애도 당조직을 찾았다.

«당에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습니다. 새로운 약물개발을 위해 전례 없는 헌신도 떠나겠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떠오른 열정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겨 주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밤을 뜨면 뜨면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박사, 부교수

에 일반화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그는 무슨 과업이 제기되면 오직 《알았습니다.》의 대답과 함께 짧은 기간에 거이 수행하고야마는 혁명적인 기풍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일생은 새 세대의 의료일군들의 논문지도에서도 표현되었다.

그는 유연한 기회에 통강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창안한 검사법이 현재로서는 미흡하지만 새로운 착상이고 실용적 가치가 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2예방부문에서 한문 말아할 새 세대의사들을 알게 된것이 제일처럼 기뻐했다. 그들의 귀중한 책을 훑어봐주고 싶었다.

계수웅동무는 스스로 그들의 논문지도를 맡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검사법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표시하였다. 게다가 연구사업에 차츰 애로와 난관이 생기자 젊은 의사들도 하나둘 손뼉을 놓고말았다.

«선생님,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합니까. 남들도 다 안된다는데...»

그러는 그들에게 안락카는 눈 빛을 보내며 계수웅동무는 말하였다.

«이 연구사업을 그 어떤 평가를 받고 시작합니까? 남들이 바라지 않으면서라도 이 논문을 포기해도 좋소. 우리가 하는 연구사업 하나하나를 바로 위대한 대인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해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힘든 배양을 질수록 더 많은 것이 얻어질것입니다.»

계수웅동무의 심장의 호소는 새 세대의사들의 가슴속에 과학 대원들에게 힘주어 말하였다.

«이중환 난관에 주저앉아서야 란부가 아니지. 자, 불박을 맞받아 나가시오.»

중대장의 배양과 심심에 고무된 중대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막장을 복수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남다른 애를 들이치는 고영남동무의 모습은 열매바지의 말보다도 더 힘있는 선동사업으로 되었다.

그가 석탄생산을 내밀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중대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린것이다. 그는 중대원들의 집을 자주 찾아 생활형편을 알아보고 대책도 세워주었다.

오늘도 고영남동무는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기 위해 대우의 앞장에서 전직의들과 구름이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계수웅 동무

자가 되기 전에 조국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새겨주었다.

그는 거의 매일이같이 평양시의 이렇듯는 병원들에 나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검사법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물론 우점까지 증명하였다.

그러하여 이 검사법은 올해에 진행된 전국의학파과토론회에

박사매달은 어떻게 빛나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한생을 과학탐구에 목욕히 바쳐가고있는 그를 두고 언제까지 그의 아들 계수웅동무가 이런 말을 한적이 없었다.

«아버지, 박사는 꼭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과학연구사업에서 그만큼 성과를 거두었으면 됐지 왜 또 치료예방단위로 가려고 합니까.»

자식이 당당한 의사로 성장할 때까지 연구사업에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보다도 계수웅동무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아들의 말은 계수웅동무로 하여금 자기가 걸어온 과학탐구의 길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첫 연구과제를 받아안고 자기 전문분야에서 고려하여 한 치료방법을 연구해나간다면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갔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그는 연구용약을 제비취하기 위하여 대흥산군을 비롯한 온 나라의 곳곳을 누볐다.

무거운 약배낭을 지고 때로는 가파로운 산밭도 넘어야 했고 수습리나 되는 밭길도 홀로 걸어야 하였다. 초발을 켜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느라 꼬박 새운 밤도 얼마인지를 몰랐다.

박사매달도 뛰어야 빛이 나는

서 1등으로 평가받고 전국에 널리 도입할수 있게 되었다.

그의 피라는 노력으로 최근년간 2예방부문에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당의 예방의학정책을 자기마찬가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한 로박사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가 남은 귀중한 열매들이었다.

그의 안에는 남편이 집필하고 아들이 후일한 원고를 다시 정서하고 딸은 타자를 담당하였다. 그야말로 온 집안이 도서집필사업에 떨쳐나섰다.

그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며 당조직에서는 로박사가 과학연구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다. 그럼수록 그는 더욱 분발하였고 박사의 영예를 빛내기 위해 순간순간을 값있게 수 놓아갔다.

2예방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그를 우리 당에서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불러주었고 명예하는 원수들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단상에도 내세워 주었다.

누구나 힘든 부문이라고 저어할 때 가능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현실로 뛰어난 참된 과학자!

그는 오늘도 쉼새이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청춘의 메기와 정열에 넘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람찬 과학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참된 삶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높아 가는 경쟁열의

세포등판건설 황해북도려단에서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경쟁이 벌어져야 낫다. 앞서자라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고 발전하게 됩니다.»

황해북도려단의 소석회생산전투에서 수안군대대와 상원군대대는 언제나 앞서라를 다투는 단위로 알려져 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대대초급일군들의 경쟁심이 남달리 높음에 있었다. 특히 수안군대대장 홍명봉동무와 상원군대대장 홍성철동무는 열의와 전격력에서 짝지 않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다.

이런 결심을 안고 두 대대장은 세포등판건설전투에서 달려나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늘 앞장에서 이선적격하며 돌격대원들을 위훈의 한길로 이끌어 왔다.

그러하여 두 대대는 지난간 소석회생산을 위한 석회로건설은 물론 석회석채취와 운반전투에서 집단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얼마전에 결속된 자연फल장

리에서도 이 대대들은 똑같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열기를 띠고 진행되는 체육경기나 흥겨운 오락회에서도 두 대대는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수안군대대장이 전문가들 못지 않은 독창으로 돌격대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면 상원군대대장은 흥겨운 출구력으로 오락회 분위기를 흥분시켜 준다.

대대장들의 이런 남다른 경쟁심은 곧 돌격대원들의 열의로 이어지고 나날이 높아가는 전투실적에 그대로 비견된다.

언제나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제는 자기들에게 먼저 맡겨달라고 할뿐 아니라 일단 일감을 받아안으면 어떻게 하나 기어이 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나온다.

전투장에서는 이렇게 앞서자라를 다투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가 양보하는 두 대대장의 마음 또한 아름답다.

얼마전에도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자면 이들은 서로의 등을 향해 뛰는것이였다.

홍성철동무는 수안군대대가 우리보다 작업과제수행은 물론 촉진상태에서 본보기라고 하면서 응당 이들을 먼저 소개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홍명봉동무는 상원군대대 돌격대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 집단의 열의를 세차게 일으켜 맡겨진 과제를 남김없이 수행하였다. 하면서 그들을 널리 소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대장들의 이런 말없는 경쟁심은 아마 대우모속산기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될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려단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본사기자 김성 일

대우의 앞장에서

덕천지구탄광관리합기업소 덕성탄광 5갱 고속도굴진소대 2당세포비서였던 강명원동무

덕천지구탄광관리합기업소 덕성탄광 5갱 고속도굴진소대 2당세포비서였던 강명원동무는 누구나 유심을 내는 기능없는 굴진공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심정력으로 노력하여 혁신자로 탄부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에 지니었다.

2008년 2월 당세포비서로 사업하게 된 강명원동무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당시 소대의 굴진실적이 시인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는 굴진소대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탄부들이 당의 믿음과 애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본분을 다하도록 정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말이 없고 고지식하면서도 인정이 뜨거운 당세포비서, 어려운 일이 나서면 먼저 무거운 짐을 지곤 하며 굴진공들을 석탄생산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되어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나섰고 굳건히 단합되게 되었다.

소대의 굴진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굴진공들의 혁신적인 소식이 탄광의 속보판에도 두드러지게 소개되게 되었다. 그러나나니 강명원동무는 언제나한편히 잠을 잘새가 없었다.

지난 10월이었다.

소대원들은 월굴진계획을 넘겨 수행한 기쁨을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날 소대장 로영철동무는 생각되는 것이 있어 강명원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얼마후 그의 집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서던 소대장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강명원동무가 안안의 도우므로 허려떨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소대장은 그러러 너무 무렵했

값있는 생의 자욱을 남긴 탄부

덕천지구탄광관리합기업소 덕성탄광 5갱 고속도굴진소대 2당세포비서였던 강명원동무

몇해후 그는 탄광의 경쟁에서 누구나 유심을 내는 기능없는 굴진공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심정력으로 노력하여 혁신자로 탄부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에 지니었다.

2008년 2월 당세포비서로 사업하게 된 강명원동무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당시 소대의 굴진실적이 시인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는 굴진소대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탄부들이 당의 믿음과 애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본분을 다하도록 정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말이 없고 고지식하면서도 인정이 뜨거운 당세포비서, 어려운 일이 나서면 먼저 무거운 짐을 지곤 하며 굴진공들을 석탄생산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되어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나섰고 굳건히 단합되게 되었다.

소대의 굴진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굴진공들의 혁신적인 소식이 탄광의 속보판에도 두드러지게 소개되게 되었다. 그러나나니 강명원동무는 언제나한편히 잠을 잘새가 없었다.

지난 10월이었다.

소대원들은 월굴진계획을 넘겨 수행한 기쁨을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날 소대장 로영철동무는 생각되는 것이 있어 강명원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얼마후 그의 집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서던 소대장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강명원동무가 안안의 도우므로 허려떨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소대장은 그러러 너무 무렵했

값있는 생의 자욱을 남긴 탄부

덕천지구탄광관리합기업소 덕성탄광 5갱 고속도굴진소대 2당세포비서였던 강명원동무

대원들에게 힘주어 말하였다.

«이중환 난관에 주저앉아서야 란부가 아니지. 자, 불박을 맞받아 나가시오.»

중대장의 배양과 심심에 고무된 중대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막장을 복수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남다른 애를 들이치는 고영남동무의 모습은 열매바지의 말보다도 더 힘있는 선동사업으로 되었다.

그가 석탄생산을 내밀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중대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린것이다. 그는 중대원들의 집을 자주 찾아 생활형편을 알아보고 대책도 세워주었다.

오늘도 고영남동무는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기 위해 대우의 앞장에서 전직의들과 구름이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출판물보급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합흥시 회상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제12차 그레노블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제12차 그레노블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29일 귀국하였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의 그레노블시에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브라질, 마자르, 미국, 멕시코, 로시지, 벨지, 우크,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16개 나라와 지역의 이름있는 교예단체들과 배우들이 참가하였다.

공공예에 《날아다니는 처녀들》을 출현한 우리 교예배우들은 재치있는 기교동작들뿐이 아니라 절제보임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교예작품에 축전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었다.

평양역에서 판계부문 일군들이 교예배우들을 마중하였다.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귀국

이런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브라질, 마자르, 미국, 멕시코, 로시지, 벨지, 우크,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16개 나라와 지역의 이름있는 교예단체들과 배우들이 참가하였다.

공공예에 《날아다니는 처녀들》을 출현한 우리 교예배우들은 재치있는 기교동작들뿐이 아니라 절제보임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교예작품에 축전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었다.

평양역에서 판계부문 일군들이 교예배우들을 마중하였다.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귀국

리사회대표단이 29일 귀국하였다.

12월 중 지자기 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7-9시), 8일(11-13시), 14일(22-24시), 16일(23-24시), 21일(9-11시), (21-23시), 31일(23-24시).

23일(10-12시), 30일(22-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12월 중 지자기 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7-9시), 8일(11-13시), 14일(22-24시), 16일(23-24시), 21일(9-11시), (21-23시), 31일(23-24시).

23일(10-12시), 30일(22-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12월 중 지자기 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7-9시), 8일(11-13시), 14일(22-24시), 16일(23-24시), 21일(9-11시), (21-23시), 31일(23-24시).

23일(10-12시), 30일(22-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12월 중 지자기 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7-9시), 8일(11-13시), 14일(22-24시), 16일(23-24시), 21일(9-11시), (21-23시), 31일(23-24시).

23일(10-12시), 30일(22-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청진지방 3일(16-18시), 8일(3-5시), 16일(23-24시), 22일(9-11시), 24일(3-5시), 29일(21-23시), 31일(23-24시).

세계 최악의 인권범죄자, 파쇼폭군

급소를 찢리운자들의 비명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 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폭로 된바와 같이 피괴들은 유엔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 함께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는데 공동체안자로 나섰다. 《환영》이니 뭐니 하고 뽐낼사나운 추태를 부렸다. 또한 《북인권보고서》라는 모략문서를 만들어 내들고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나, 미국구성인권특사나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속덕공문을 벌였다. 피괴배당이 《북인권》노골을 요란하게 불어대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정치적대립이며 끝수에 배긴 체제대결의양상을 이루어보려는 추악한 속셈의 발로이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북인권결의안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북인권결의안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유엔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

【평양 11월 29일합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대표가 26일 유엔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 행위를 대차하여 브라질과 도이쉴란드가 발기한 결의안 《정보화시대의 사생활권리》를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이번에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합세해나선 대중정투쟁

보존체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특대권력형부정선거라는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그러나 피괴집권세력은 저들의 죄愆를 은폐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피괴집권세력의 위기를 깨닫고 있는 우리 인민들은 합세해나선 대중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시국시사를 열고 선거운동을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것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정권을 요구하는 민심을 목숨걸고 버리고 고집불통의 독재모습을 보이는 박근혜는 이 남조선인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닐로 스스로 인정하는것으로 불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서부터는 현 피괴집권자가 어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표본만 한 자격도 없다. 온 남조선방면을 세계최악의 인권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피괴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조이다. 피괴반역당은 온갖 모략과 반인륜적 민행을 일삼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닦는 극악한 인권범죄자이다. 인권을 곧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 아느냐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준엄과 자주권을 지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후안무치한 일본의 정객들

브라질, 나이지리아단체가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런던에서 26일 미군의 무인기 추락사건에 관하여 《역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특대형반인륜범죄로 락인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지만 현 일본정객들은 《위안부》강제 연행이 진실이 아니라고 우겨대고있다고 깨닫았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일제의 조선인 학살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힐것을 요구

남조선의 기독교장로회와 《923한일역사문제연구소》가 25일 피괴집권세력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의 조선인학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그동안 간도대지진때 강행한 조선인학살사실과 관련된 당시 헌병과 군인들이 조선사람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하며 그날의 범죄를 부인하고있다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조선대사관의 문서를 통해 일본헌병이 조선사람들을 총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의 헤버트 파크트르크 와우에서 26일 미군의 무인기 추락사건에 관하여 《역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특대형반인륜범죄로 락인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지만 현 일본정객들은 《위안부》강제 연행이 진실이 아니라고 우겨대고있다고 깨닫았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중동평화회담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망동

최근 이스라엘이 비법적으로 감행한 팔레스타인영토에 유대인살인행위를 또 건설할때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감행한 팔레스타인영토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유대인정착촌들의 영토확장책임을 유대인정착촌들이 스스로 부담하고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후 중동평화회담을 비롯한 관계 여러 나라들에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대우기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있는것은 모처럼 마련된 중동평화회담이 결렬될 지언에 처한것과 관련된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 채택

유엔총회가 26일 2014년을 팔레스타인인민과의 세계연대성의 해로 정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자결권을 비롯한 팔레스타인민민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이런데 폭로된 전자감청행위의 심각성은 바로 국가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자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칙을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감청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필리핀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대

필리핀에서 11월초에 들어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다. 27일이나 정부에 태풍에 의해 현재까지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757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2만 6136명이 부상당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소식

일본은 최근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생물DNA시계를 개발하였다. 이것을 통해 인체조직의 생물학적나이와 사람의 실제나이를 비교할수 있다. 생물DNA시계는 사람의 완전한 유전체구조를 이루는 게놈속에서 발견되었다. 이번 발견은 사람이 왜 늙으며 어떻게 하면 노화과정을 지연시키겠는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